

25-17(통권 996호) 2025.09.12

경제주평

2026년 한국 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 경제성장률 2025년 1.0%에서 2026년 1.9%로 반등

목 차

■ 2026년 한국 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 경제성장률 2025년 1.0%에서 2026년 1.9%로 반등

Executive Summary	i
1. 대외 경제 환경	1
2. 최근 한국 경제 경기 동향	7
3. 한국 경제 전망	14
4. 시사점	24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동향분석팀장 (2072-6306, leebuh@hri.co.kr)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신지영 연구위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시연 연구위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6년 한국 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 경제성장률 2025년 1.0%에서 2026년 1.9%로 반등

■ 대외 경제 환경

① 세계 경제 전망

(세계 경제) 트럼프 통상 정책 영향으로 국제교역 환경 악화가 예상되지만, 세계 경제는 미약한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26년 세계 경제는 국제교역 환경 악화에 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여건 개선, 일부 주요국의 재정 확대 등으로 '25년보다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7월 전망에 따르면 '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로 '25년의 3.0%에서 미약하게나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교역 환경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세계 교역 증가율이 '25년 2.6%에서 '26년 1.9%로 둔화될 전망이다.

(선진국) 미국 경제는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로존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책 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현재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5년 1.9%보다 소폭 개선된 2.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로존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및 내수 확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이 '25년 1.0%에서 '26년 1.2%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신흥국 및 개도국) 중국 성장세 약화가 다른 주요 신흥국 및 개도국 성장 효과를 상쇄하여 '26년 신흥국 및 개도국 경제성장률(4.0%)은 '25년(4.1%)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대미 무역 갈등 등에 따른 외수 경기 부진과 내수 경기 회복 지연으로 경제성장률이 '25년 4.8%, '26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주요 신흥국 및 개도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별 성장 차별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② 주요 가격 변수 동향과 전망

(금리) 미 FED의 금리 인하 재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중앙은행들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하방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금리 인하 재개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강화된 상황이다. 한편, BOK의 금리 인하 속도는 FED의

속도에 맞추는 전략을 유지하면서 현재 금리 수준 2.50%에서 1~2회 추가적인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美 금리 인하 재개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달러화는 美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적자 확대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 자산 지위 약화로 인해 약세가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도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등으로 인해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원화는 달러화 약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26년 국내 성장률 반등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 효과 등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26년 국제 유가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인 약세가 전망된다. 국제 유가는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의 수요 둔화 및 주요 생산국의 공급 과잉 등으로 배럴당 60달러 중반대 수준이 예상된다. 한편, 세계 산업활동 둔화로 에너지 및 광물 등 원자재 상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음식료·농산물 등의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 한국 경제 전망

(경제 전망의 배경)

('25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하반기 들어 대내외 여건이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5년 하반기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25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이에 따르는 경제 심리의 회복으로 경기 전환(하강에서 상승)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여전히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 시장과 미국 외 시장으로 양분되는 새로운 글로벌 교역 시스템의 방향성이 가시화되고 이에 우리 수출 산업들이 적응해 나가면서, 수출 경기가 생각보다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25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 전망 시점('25년 4월 전망)보다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25년 경제 지표의 전망치를 수정하였다.

('26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긍정적 여건과 부정적 여건의 혼재로 '26년에도 완전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 방향성은 우상향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26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적극적인 확장 재정 측면에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5년의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에 대한 기술적 반등력도 작용하면서 경제가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6

년 통화정책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핵심 경제 변수인 ‘성장과 물가’ 보다 부차적 변수인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를 더 중요 시하여, 경기 대응에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또 다른 부정적 여건으로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 압박 정책의 전개로 수출 경기가 예상보다 더 침체되는 경우 국내 주력 산업들의 투자 절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① 경제 성장

GDP증가율	1.0%	⇨	1.9%
	(2025)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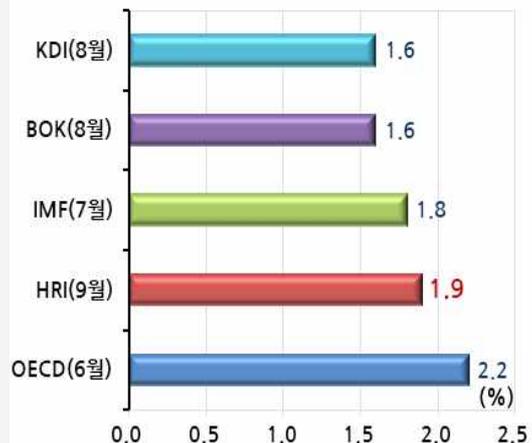
'26년 한국 경제는 내수 회복이 외수 부진의 영향을 상쇄하며 잠재성장률 수준 (2% 내외)에 근접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외수의 경우 미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수 부문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 경기 회복 등이 이어지면서 '26년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26년 경제성장률은 '25년 1.0%보다 개선된 1.9%를 기록할 전망이다, 추세로는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3%, 하반기 1.5%의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세가 투자 부문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거나, 향후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내·외수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회복 강도가 제한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의 2026년 성장률 전망 >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② 내수

민간소비증가율	1.3%	⇨	1.7%
	(2025)		(2026)

소비심리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여건 완화,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소비 여력이 강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5년 상반기 중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크게 위축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추경 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특히, 가계의 현재 경기판단 CSI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향후 경기전망이 장기평균(100p)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낙관적 소비심리는 '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6년에는 금리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금융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가 이어져 소비 여력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6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5년 1.3%에서 개선된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세로는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9%, 하반기 1.5%의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된다.

설비투자증가율	1.8%	⇨	1.5%
	(2025)		(2026)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에 의한 수출 감소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세는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조달 여건 개선, 반도체 및 IT 부문의 투자 지속 등으로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업 심리가 장기평균(100p)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흐름이 장기화한 가운데 기업활동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 변화 등이 기업 심리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26년에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생산 설비 확대 동기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6년 설비투자증가율은 '25년 1.8%보다 낮아진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세로는 반도체 및 IT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까지 전년동기대비 2.0%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증가세가 둔화하며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증가율	△7.0%	⇨	2.6%
	(2025)		(2026)

건설투자는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 등으로 건설수주가 개선되며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 침체를 지속한 건설투자('21년~'25년까지 역성장)는 '25년 하반기 선행지표인 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며 향후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토목의 경우 '26년 정부 예산안 중 SOC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가 27.5조 원으로 '25년 25.4조 원 대비 7.9% 증가하며 개선이 기대된다. 건설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경우에도 '25년 중 건축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착공 면적이 반등한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환경 개선 등이 동반되면서 증가세가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수요관리 정책,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지연 등 요인의 영향 정도에 따라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증가율은 '25년 $\Delta 7.0\%$ 에서 '26년 2.6%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세는 상고하저의 모습으로 전망되며,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4.2%, 하반기 1.2%로 예상된다.

③ 대외 거래

수출증가율	$\Delta 0.6\%$	⇨	$\Delta 1.0\%$
	(2025)		(2026)

수출증가율은 '25년 $\Delta 0.6\%$ 에서 '26년 $\Delta 1.0\%$ 로 감소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6년 상반기까지는 상호관세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 품목 관세에 따른 연관 품목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의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해소 지연, 미국의 품목별 관세 인상 및 확대 등 하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입증가율	$\Delta 1.8\%$	⇨	1.1%
	(2025)		(2026)

수입증가율은 '25년 $\Delta 1.8\%$ 에서 '26년 1.1%로 증가 전환할 전망이다. '26년 상반기 0.8%, 하반기 1.3%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입재에 대한 수요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투자 반등,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해 자본재 및 소비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589억 달러	⇨	457억 달러
	(2025)		(2026)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25년 589억 달러에서 '26년 457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26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170억 달러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수출이 소폭 증가하면서 287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에도 수출 경기가 반등하지 못할 경우,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경상수지	874억 달러	⇨	680억 달러
	(2025)		(2026)

경상수지는 '25년 874억 달러에서 '26년 68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6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3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그보다 소폭 높은 360억 달러가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감소는 상품수지(무역수지) 악화, 해운운임 하락 등에 따른 운송수지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물가 및 고용

소비자물가상승률	2.0%	⇨	1.9%
	(2025)		(2026)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은 내수가 회복함에 따라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관세에 따른 세계 산업활동 둔화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미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화 약세로 1,300원 중반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상 기후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급등,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에 따른 공급망 혼란 등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도 상존하고 있다. 한편, 소비 회복의 영향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등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년 2.0%에서 '26년 물가안정목표(2.0%)를 소폭 하회하는 1.9%로 둔화할 전망이다.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1.8%, 하반기에는 소폭 높은 2.1%의 물가상승률이 전망된다.

실업률	2.9%	⇨	3.0%
	(2025)		(2026)

실업률은 '25년 2.9%에서 '26년 3.0%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년 상반기 실업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보다 낮은 2.9%가 예상된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상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자수증감	19만명	⇨	18만명
	(2025)		(2026)

신규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증감)는 '25년 19만 명, '26년 18만 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17만 명, 하반기에는 19만 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회복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 등 서비스업 고용 개선세가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부진을 상쇄한 영향으로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겠으나, 고용의 질은 악화될 전망이다.

■ 시사점

2026년은 그동안 장기 불황 국면에 갇혀 있던 한국 경제가 다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복귀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의 편더멘털이 크게 훼손되어 충분한 리질리언스가 발휘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외 불확실성 또한 해소되지 않아 수출의 경기 선도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모처럼 만들어진 한국 경제의 정상화 기회를 살려가기 위해서는, **첫째**, 정상적 경제 성장 기조로의 조속한 복귀를 통해 시장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 심리가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정정책은 운용의 묘를 살려 경기 진작과 성장잠재력 확충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며, 2026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진작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셋째**, 어렵게 만들어진 경기 회복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재정정책의 확장 기조와 손발이 맞는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 **넷째**, 단기적인 경기 회복력의 강도를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동력이 되는 기업 투자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건설투자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급 주도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여섯째**, 향후 우려되는 트럼프 통상 정책의 제2라운드 시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행 능력 점검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고루 확산되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힘써야 한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6년 한국 경제 전망표(2025년 9월) >

구 분	2024	2025			2026(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0	0.3	1.7	1.0	2.3	1.5	1.9
	민간소비 (%)	1.1	0.7	1.8	1.3	1.9	1.5	1.7
	건설투자 (%)	△3.3	△12.2	△1.7	△7.0	4.2	1.2	2.6
	설비투자 (%)	1.7	4.5	△1.0	1.8	2.0	1.0	1.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990	494	380	874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518	278	311	589	170	287	457
	수출증가율 (%)	8.1	0.0	△1.2	△0.6	△2.5	0.5	△1.0
	수입증가율 (%)	△1.7	△1.6	△2.0	△1.8	0.8	1.3	1.1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2.1	1.9	2.0	1.8	2.1	1.9	
실업률 (%)	2.8	3.1	2.7	2.9	3.1	2.9	3.0	
취업자수 증감 (만 명)	16	18	20	19	17	19	18	

1. 대외 경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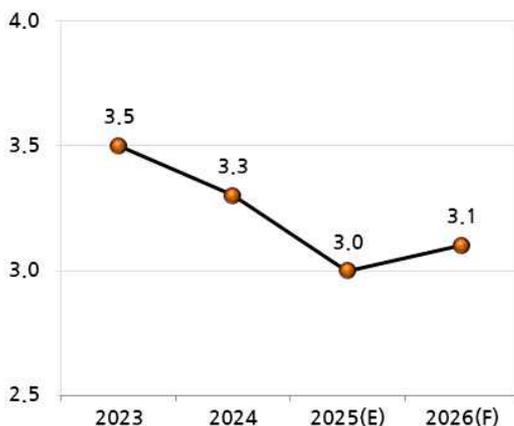
① 세계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트럼프 통상 정책 영향으로 국제교역 환경 악화가 예상되지만, 세계 경제는 미약한 개선세를 보일 전망

- '26년 세계 경제는 국제교역 환경 악화에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여건 개선, 일부 주요국의 재정 확대 등으로 '25년보다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전망
 - IMF 7월 전망에 따르면 '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로 '25년의 3.0%에서 미약하게나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관세 부과에 따른 부작용, 세계 무역 갈등의 재점화,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의 리스크도 상존함

- 한편, '26년 국제교역 환경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높아진 실효관세율 및 조기선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세계 교역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IMF 7월 전망 통계 기준으로 세계 교역 증가율은 '25년 2.6%에서 '26년 1.9%로 하락할 전망이다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WEO(July 2025).

<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 >



자료: IMF WEO(July 2025).

○ (선진국) 미국 경제는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로존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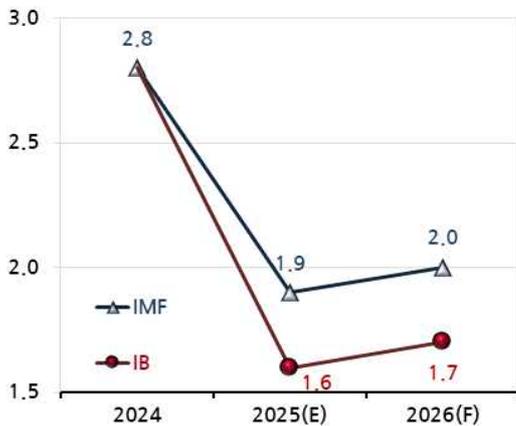
- (미국) 트럼프 정책 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현재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IMF는 '26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5년 1.9%보다 소폭 개선된 2.0%로 전망하였으며, 주요 IB 전망치도 IMF보다 다소 보수적인 시각이지만 비슷한 흐름 '25년 1.6% → '26년 1.7%을 보여주고 있음
- 높아진 실효관세율에 따르는 물가 상승, 고용시장 약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트럼프 감세 정책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효과가 상쇄할 것으로 기대됨

- (유로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및 내수 확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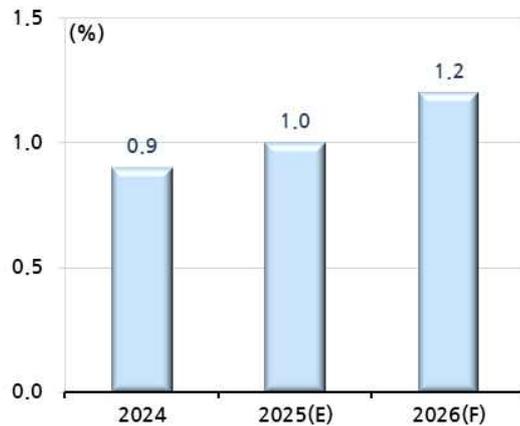
- '26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5년 수준 1.0%에서 소폭 개선된 1.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내 주요 경제권 중 독일 '25년 0.1% → '26년 0.9%의 회복세가 주목됨
-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와 독일을 중심으로 국방비, 인프라 투자 등의 정부지출 확대에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IMF WEO(July 2025), Bloomberg¹⁾.

< 유로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IMF WEO(July 2025).

1) IB는 BoA메릴린치, JP모건체이스, Citi 등 7개 투자은행 평균 전망치(2025.8).

○ (신흥국 및 개도국) 중국 성장세 약화가 다른 주요 신흥국 및 개도국 성장 효과를 상쇄하여 '26년 경제성장률은 '25년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대미 무역 갈등 및 조기 선적 부작용 등에 따르는 외수 경기 부진과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및 디플레이션 deflation 압력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이 예상됨
- '26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25년 수준 4.8%에서 다소 둔화된 4.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무역 갈등 완화 및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으로 성장률이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함

- (기타 신흥국) 다른 주요 신흥국 및 개도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별 성장 차별화 현상은 지속될 전망

- IMF 7월 전망 통계에 따르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신흥국은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동유럽 지역 신흥국은 성장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2023	2024	2025(E)	2026(E)
세계 경제성장률	3.5	3.3	3.0	3.1
선진국	1.8	1.8	1.5	1.6
미 국	2.9	2.8	1.9	2.0
유로지역	0.5	0.9	1.0	1.2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4.7	4.3	4.1	4.0
아시아신흥국	6.1	5.3	5.1	4.7
중 국	5.4	5.0	4.8	4.2
인 도	9.2	6.5	6.4	6.4
ASEAN-5	4.1	4.6	4.1	4.1
중남미	2.4	2.4	2.2	2.4
중동 및 중앙아시아	2.4	2.4	3.4	3.5
동유럽	3.6	3.5	1.8	2.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6	4.0	4.0	4.3
세계 교역량증가율	1.0	3.5	2.6	1.9

자료: IMF WEO(July,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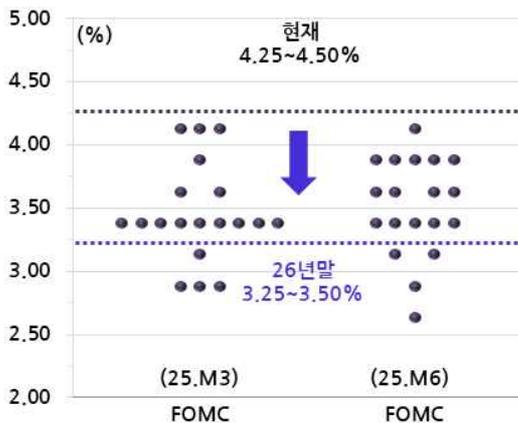
② 주요 가격 변수 동향과 전망

○ (금리) 미 FED의 금리 인하 재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중앙은행들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하방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금리 인하 재개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강화된 상황

- ECB는 선제적 금리 인하를 시작한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되며, BOJ는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BOK의 금리 인하 속도는 FED의 속도에 맞추는 전략을 유지하면서 현재 금리 수준 2.50%에서 1~2회 추가적인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FED-FOMC 점도표 >



자료: FOMC(March 2025 & June 2025).

< IB의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 >

	2025	2026(E)			
	Q4	Q1	Q2	Q3	Q4
FED (%)	4.00	3.75	3.50	3.50	3.25
BOJ (%)	0.75	0.75	0.75	1.00	1.00
ECB (%)	1.90	1.90	1.90	1.90	2.15
BOK (%)	2.25	2.00	2.00	2.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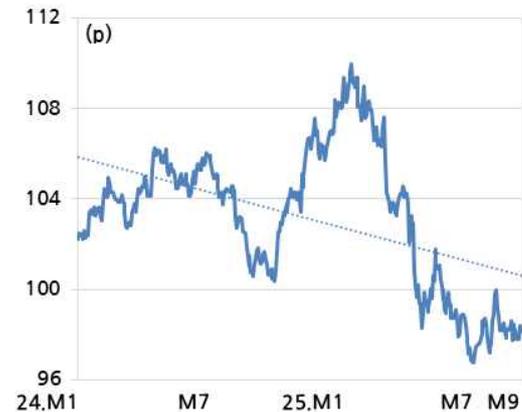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환율) 美 금리 인하 재개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등으로 인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달러화는 美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적자 확대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 자산 지위 약화로 인해 약세가 전망됨

- 달러화 약세로 인해 유로화·엔화·위안화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변동성 확대의 우려가 상존함
- 원화는 달러화 약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26년 국내 성장률 반등과 세계국채지수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 효과 등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최근 달러인덱스 추이 >



자료: Bloomberg.

< IB 주요 환율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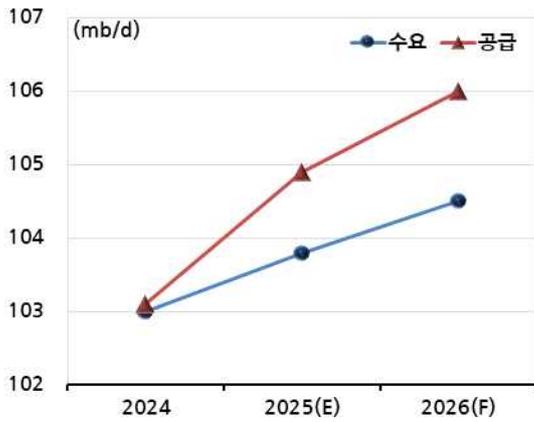
	2025	2026(E)			
	Q4	Q1	Q2	Q3	Q4
달러/유로	1.18	1.19	1.20	1.20	1.22
엔/달러	143	140	139	136	135
위안/달러	7.15	7.14	7.11	7.06	7.08
원/달러	1,370	1,358	1,340	1,330	1,326

자료: Bloomberg.

○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26년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인 약세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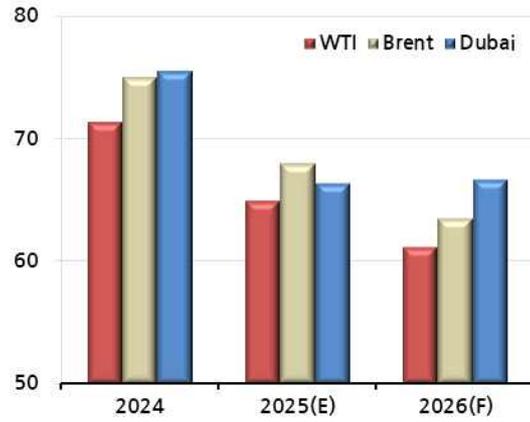
- 국제 유가는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의 수요 둔화 및 주요 생산국의 공급 과잉 이슈 등으로 배럴당 60달러 중반대 수준을 예상
 - 美 관세 부과 및 무역 긴장 지속으로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의 수요 둔화가 예상되며, 세계 수요 증가세도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어 수요 측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공급 측면에서도 OPEC+가 9월부터 감산을 종료하고 일평균 54.7만 배럴의 증산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공급 과잉에 따른 초과공급이 예상됨
 -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 미·중 관세협상 진전 기대 등으로 하반기 국제 유가 반등의 여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계 일별 원유 수요량-공급량 (100만 배럴/日) >



자료: IEA.

< 국제 유가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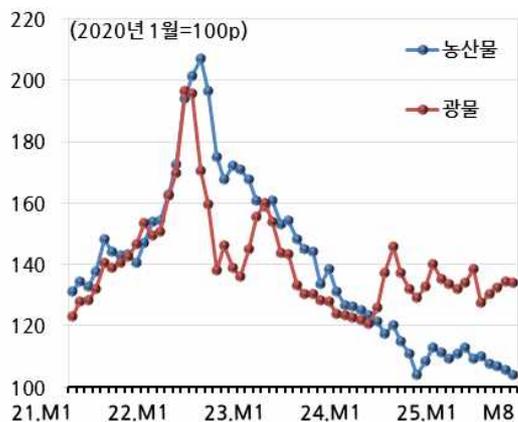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공사, Bloomberg.

- 세계 산업활동 둔화로 에너지 및 광물 등 원자재 상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음식료·농산물 등의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전망

- 美 품목 관세 영향 및 세계 산업활동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로 에너지와 광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음식료·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따른 가격 상방 리스크도 상존함
- 한편, 구리·알루미늄 등 일부 비철금속은 친환경·AI 산업 확대에 따른 수요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타이트한 글로벌 수급 여건으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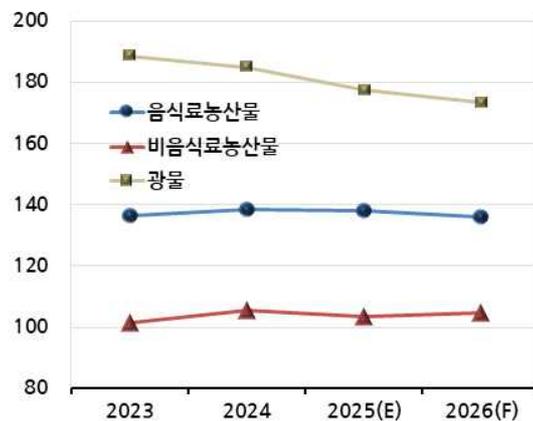
< 농산물 및 광물 원자재 가격 지수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를 이용한 지수화.

< 항목별 원자재 가격 지수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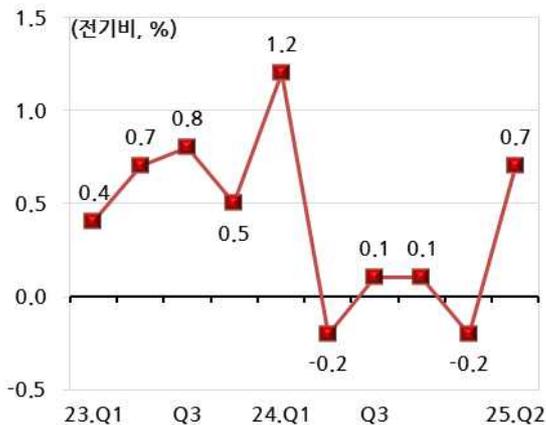
2. 최근 한국 경제 경기 동향²⁾

① 경기(경제성장률)

○ 경제가 침체 국면 탈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탈출 속도는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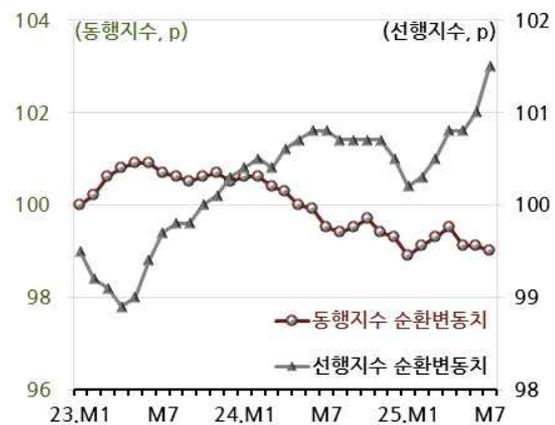
- 2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은 1분기의 역 **인성장** 전기비 $\Delta 0.2\%$ 에서 반등하여 전기비 **0.7%**, 전년동기대비로는 **0.6%**를 기록
 - 2분기에도 설비투자 전기비 $\Delta 2.1\%$ 와 건설투자 $\Delta 1.2\%$ 의 침체가 지속되었으나, 민간소비 0.5%, 수출 4.5%이 반등하면서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한편, 수요 부문 중 건설투자가 '24년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함
-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7월에 들어 하락하면서 경기 저점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급등하면서 회복 국면 진입 가능성을 시사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7월 현재 99.0p로 지난 4월을 단기 고점으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4월 99.5p, 5월 99.1p, 6월 99.1p, 7월 99.0p
 - 반면,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 하강에서 상승으로의 경기전환을 예고 중임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4월 100.8p, 5월 100.8p, 6월 101.0p, 7월 101.5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2) 2장은 현대경제연구원(2025),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3분기)”, 경제주평, 25-16(통권 995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췌함.

② 내수

○ (민간소비) 7월 하순경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다소 높아지면서 소비가 강한 반동을 시현

- 7월 소매판매 호조에는 일정 부분 소비쿠폰 지급이 기여한 바도 있으나 그보다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른 심리 개선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 소매판매 증가율은 7월에 들어 증가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1분기 0.4%, 2분기 Δ 0.9%, 4월 Δ 1.0%, 5월 0.0%, 6월 0.7%, 7월 2.5%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Δ 0.3%, 2분기 0.0%, 4월 Δ 0.1%, 5월 Δ 0.2%, 6월 0.3%, 7월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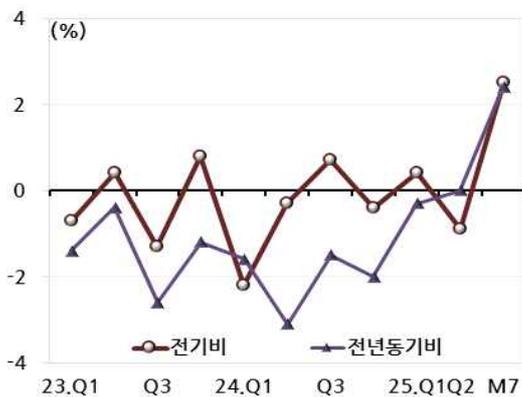
- 소비 항목별로 비내구재, 준내구재, 내구재 소비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내구재의 회복 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

· 내구재 소비는 전년동월비로는 승용차 12.9%, 전월비로는 통신기기 및 컴퓨터 16.8%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3.0%, 2분기 4.9%, 4월 4.5%, 5월 4.8%, 6월 5.4%, 7월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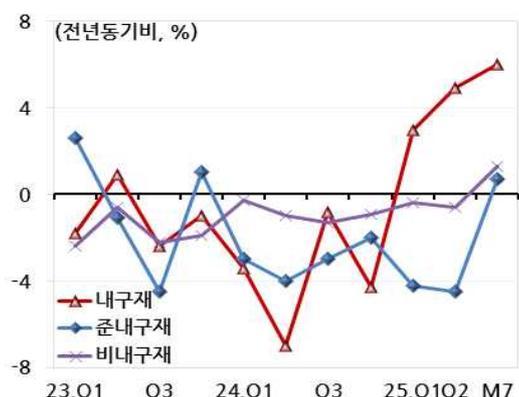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Δ 0.4%, 2분기 Δ 0.6%, 4월 0.0%, 5월 Δ 1.4%, 6월 Δ 0.4%, 7월 1.3%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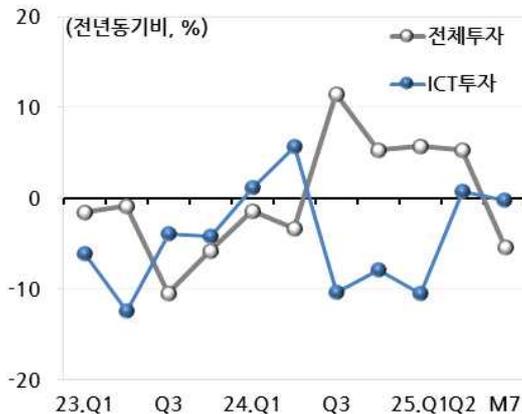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설비투자) 경제 내 충분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설비투자는 전월에 비해 회복되는 모습이나, 1년 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
 -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4년 7월 대비 5.4%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 '25년 6월 대비로는 7.9% 증가함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분기 5.7%, 2분기 5.3%, 4월 8.3%, 5월 6.6%, 6월 1.4%, 7월 △5.4%
 - 또한, 국내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가 6월과 7월에 들어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감소세를 지속함
 -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분기 △10.5%, 2분기 0.7%, 4월 3.5%, 5월 17.8%, 6월 △15.2%, 7월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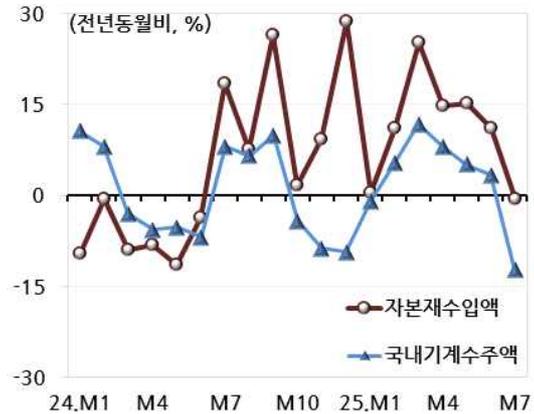
-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침체
 - 자본재수입액은 상반기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7월에 감소세로 전환됨
 -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1월 0.5%, 2월 11.0%, 3월 25.2%, 4월 14.7%, 5월 15.2%, 6월 11.0%, 7월 △0.6%
 - 국내기계수주도 7월에 들어 큰 폭의 감소율 전년동월비 △39.3%를 기록함
 -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³⁾: 1월 18.6%, 2월 1.9%, 3월 14.8%, 4월 7.5%, 5월 △7.1%, 6월 9.6%, 7월 △39.3%

< 설비투자지수 및 ICT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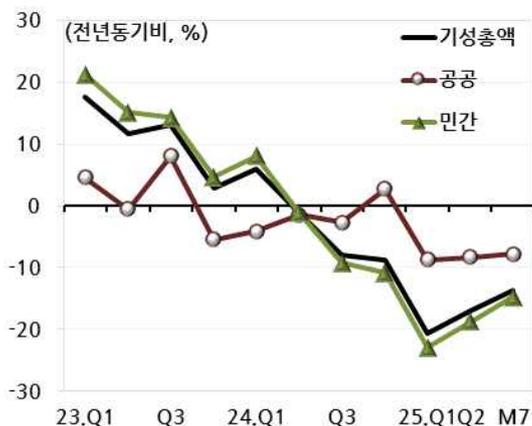
3)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 (건설투자)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감소를 지속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공공 부문의 호조로 증가세 기록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감소세를 지속
 - 7월 건설기성 증가율 전년동월비는 $\Delta 13.7\%$ 로 '24년 5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함
 - ※ 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Delta 20.6\%$, 2분기 $\Delta 17.0\%$, 4월 $\Delta 20.4\%$, 5월 $\Delta 19.2\%$, 6월 $\Delta 11.8\%$, 7월 $\Delta 13.7\%$
 - 발주자별로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감소세를 지속함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Delta 8.7\%$, 2분기 $\Delta 8.3\%$, 4월 $\Delta 10.0\%$, 5월 $\Delta 4.4\%$, 6월 $\Delta 9.9\%$, 7월 $\Delta 7.8\%$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Delta 22.9\%$, 2분기 $\Delta 18.7\%$, 4월 $\Delta 22.3\%$, 5월 $\Delta 22.4\%$, 6월 $\Delta 11.6\%$, 7월 $\Delta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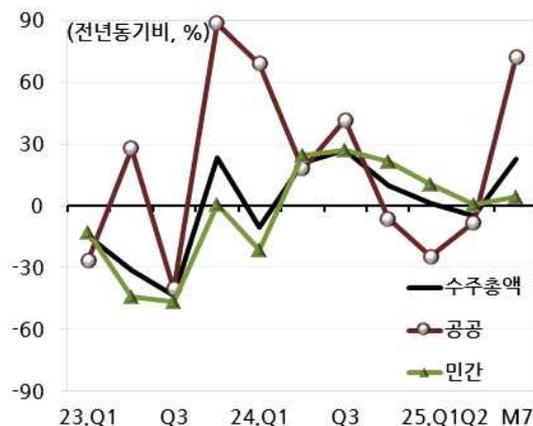
-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설수주액 선행지표는 7월에 들어 공공 부문 수주가 크게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
 - 7월 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2.4%로 6월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됨
 - ※ 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1.1%, 2분기 $\Delta 5.1\%$, 4월 $\Delta 10.3\%$, 5월 4.2%, 6월 $\Delta 7.0\%$, 7월 22.4%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Delta 24.6\%$, 2분기 $\Delta 8.1\%$, 4월 $\Delta 7.2\%$, 5월 $\Delta 4.7\%$, 6월 $\Delta 10.0\%$, 7월 72.1%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10.4%, 2분기 0.9%, 4월 $\Delta 10.8\%$, 5월 12.1%, 6월 2.5%, 7월 4.4%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③ 대외 거래

○ 미국, 중국, EU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선박 3대 품목은 증가세를 유지

- 전체 수출은 아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출 물량이 정체되는 모습이고 향후 상호관세 부과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수출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존재

· 수출증가율은 7월 전년동월대비 5.8%에서 8월에 들어서도 1.3%의 증가세를 이어감

※ 수출액 증가율: 4월 3.5%, 5월 Δ 1.3%, 6월 4.4%, 7월 5.8%, 8월 1.3%

· 다만, 수출물량증가율은 7월 전년동월대비 5.5%에서 8월에 0.3%로 낮아짐

※ 수출물량 증가율: 4월 6.3%, 5월 Δ 1.3%, 6월 10.8%, 7월 5.5%, 8월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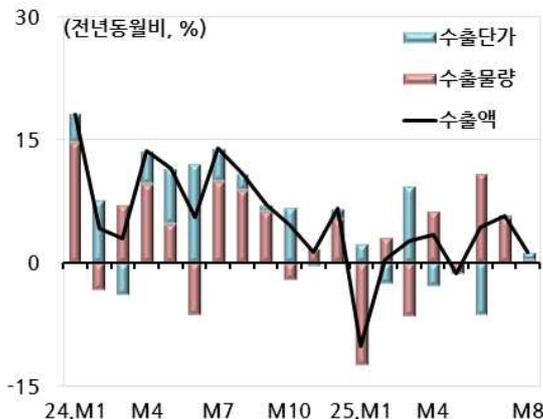
- 8월 중, 주력 시장에 대한 수출이 침체되는 모습이며,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세 품목만 증가세를 기록

· 미국 Δ 12.0%, 중국 Δ 2.9%, 유럽연합 Δ 9.2% 등 주력 시장에 대한 수출이 침체되었으나, 아세안 11.9% 등 여타 지역으로의 수출은 호조를 보임

·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27.1%, 선박 11.8%, 자동차 8.6% 세 품목만 증가세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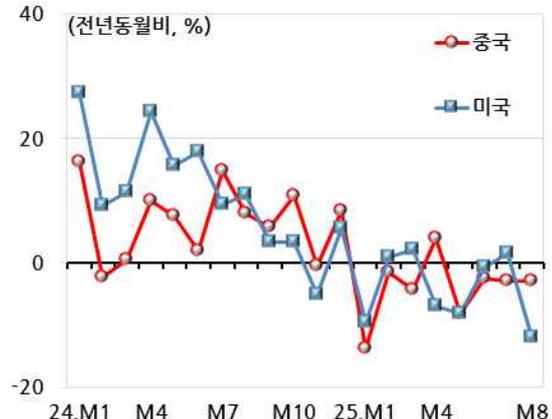
· 한편, 석유화학 Δ 18.7%, 자동차부품 Δ 8.9%, 무선통신기기 Δ 14.1%, 가전 Δ 11.8%, 철강 Δ 15.4% 등의 품목은 감소함

< 총수출 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대미 및 대중 수출 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④ 물가 및 고용

○ (물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여전한 내수 부진으로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7월 중 원화 강세와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하락으로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되면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안정세를 시현

· 7월 수입물가는 원화의 강세 '24년 7월 1,383원/달러 → '25년 7월 1,377원/달러와, 국제유가 두바이유 급락 '24년 7월 83.8달러/bbl → '25년 7월 70.9달러/bbl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5.9%의 감소세를 기록함

※ 수입물가상승률(YoY): 4월 △2.6%, 5월 △5.1%, 6월 △6.2%, 7월 △5.9%

· 7월 생산자물가상승률은 기후 악화로 농림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전력·가스·수도 등에서 요금 인상의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공산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년동월대비 0.5%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4월 0.8%, 5월 0.3%, 6월 0.5%, 7월 0.5%

-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로 진입하고 근원물가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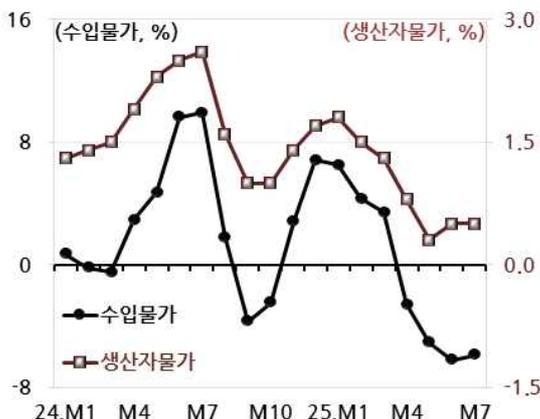
·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축수산물 전년동월비 4.8%이 크게 올랐으나, 통신비가 크게 하락 △13.3%, 기여도 △0.6%p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7%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5월 1.9%, 6월 2.2%, 7월 2.1%, 8월 1.7%

· 한편 일시적 변동 요인이 제거된 근원물가상승률도 1%대 초반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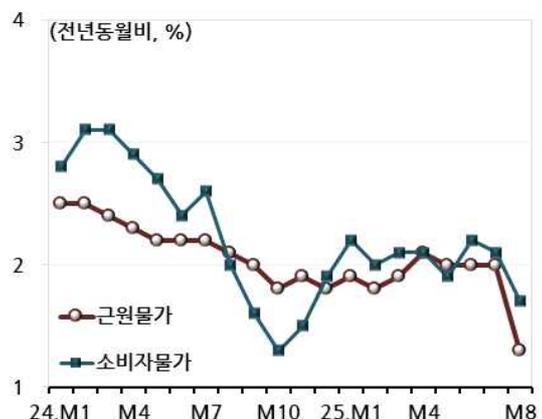
※ 근원물가상승률(YoY): 5월 2.0%, 6월 2.0%, 7월 2.0%, 8월 1.3%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주: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기준.

○ (고용) 실업률 지표 자체는 안정화되어 있으나, 구직단념자의 증가, 질 좋은 일자리의 감소, 청년 취업 시장 냉각 등의 시장 구조적 문제가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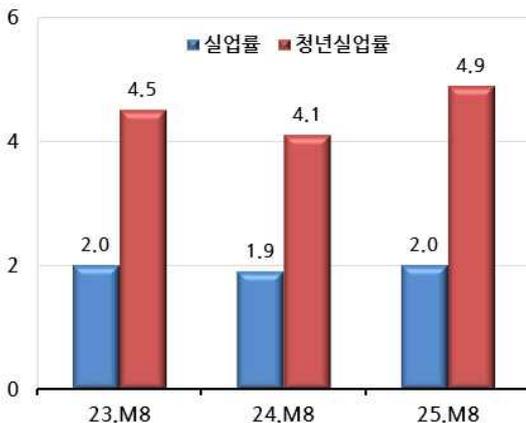
- 8월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은 전년동월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8월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 '24년 8월의 1.9%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8월 청년 15~29세 실업률도 4.9%로 전년동월보다 상승
- 한편, 7월에 증가 전환한 구직단념자⁴⁾는 8월에도 증가세를 지속
- ※ 구직단념자 수 증감(YoY): 6월 △3.2만 명, 7월 1.5만 명, 8월 4.3만 명

- 8월 신규취업자 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16.6만 명으로 7월보다 감소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제조업·건설업,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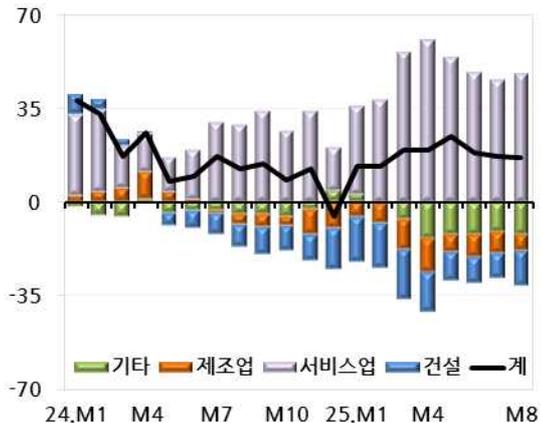
- 8월 취업자 수 증감 전년동월비는 16.6만 명으로 7월 17.1만 명에서 하락함
- ※ 취업자 수 증감(YoY): 6월 18.3만 명, 7월 17.1만 명, 8월 16.6만 명
- 8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전년동월비는 제조업 △6.1만 명, 건설업 △13.2만 명, 서비스업 48.0만 명임
- 한편,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15~29세이 '22년 11월 이후 3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임
- 특히, 건설업 및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 폭은 7월에 비해 확대되어 장기적인 고용 악화가 우려됨

< 8월 기준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별⁵⁾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4)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

5)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

3. 한국 경제 전망

○ 경제 전망의 배경

- ('25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하반기 들어 대내외 여건이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
 - '25년 하반기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난 '25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이에 따르는 경제 심리의 회복으로 경기 전환 하강에서 상승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여전히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 시장과 미국 외 시장으로 양분되는 새로운 글로벌 교역 시스템의 방향성이 가시화되고 이에 우리 수출 산업들이 적응해 나가면서, 수출 경기가 생각보다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25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 전망 시점 '25년 4월 전망보다 다소 긍정적인 시각으로 경제 지표들의 전망치를 수정함

- ('26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긍정적 여건과 부정적 여건의 혼재로 '26년에도 완전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 방향성은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26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적극적인 확장 재정 측면에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5년의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에 대한 기술적 반등력도 작용하면서 경제가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반면, '26년 통화정책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본연의 역할 핵심 경제 변수인 '성장과 물가' 보다 부차적 변수인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를 더 중요시하여, 경기 대응에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음
 - 한편, 또 다른 부정적 여건으로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 압박 정책의 전개로 수출 경기가 예상보다 더 침체되는 경우 국내 주력 산업들의 투자 절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임

① 경제 성장

GDP증가율	1.0%	⇨	1.9%
	(2025)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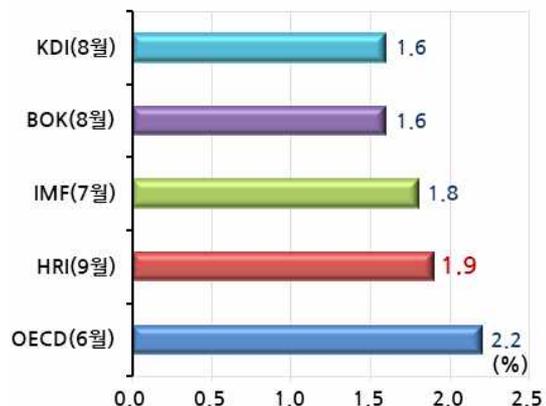
- '26년 한국 경제는 내수 회복이 외수 부진의 영향을 상쇄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 부문별로 살펴보면, 외수의 경우 미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민간소비 증가세 확대, 건설 경기 회복 등으로 내수 부문 성장세가 반등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세가 투자 부문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거나,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내·외수 전반에 경기 확장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 강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26년 경제성장률은 '25년 1.0%보다 개선된 1.9%를 기록할 전망
 - '26년 성장률은 '25년 상저하고의 영향으로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3%, 하반기 1.5%의 상고하저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5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치보다 **0.3%p 상향조정**한 **1.0%**가 될 것으로 수정전망함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의 2026년 성장률 전망 >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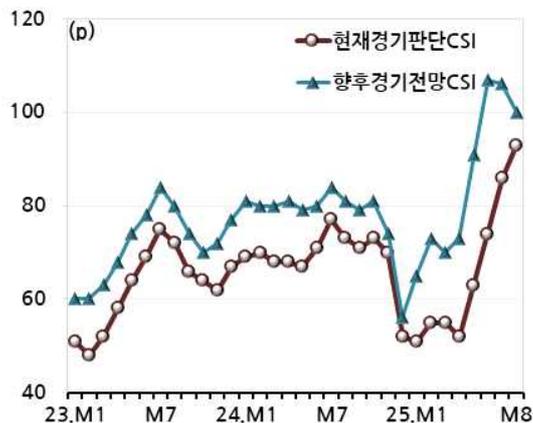
② 내수

민간소비증가율	1.3%	⇨	1.7%
	(2025)		(2026)

- 소비심리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여건 완화,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소비 여력이 강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25년 상반기 중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추경 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치며 회복세를 보임
 - 특히, 가계의 현재 경기판단 CSI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향후 경기전망이 장기평균 100p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낙관적 소비심리는 '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6년에는 금리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금융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가 이어져 소비 여력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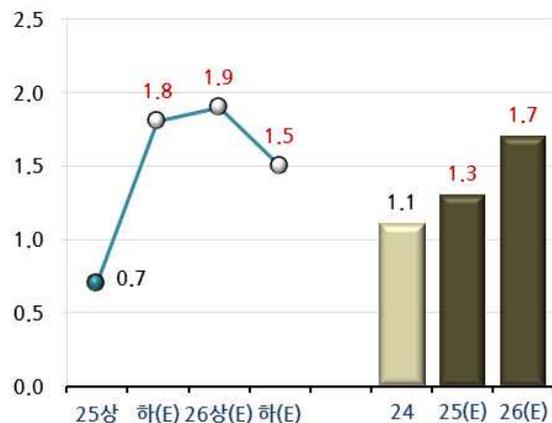
- 이에 따라 '26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5년 1.3%에서 개선된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6년 민간소비의 추세는 '25년 상반기 중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했던 기저 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고하저의 모습으로 전망되며,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9%, 하반기 1.5%로 예상됨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설비투자증가율	1.8%	⇨	1.5%
	(2025)		(2026)

-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에 의한 수출 감소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세는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

-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조달 여건 개선, 반도체 및 IT 부문의 투자 지속 등으로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기업 심리가 장기평균 100p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흐름이 장기화한 가운데 기업활동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 변화 등이 기업 심리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생산 설비 확대 동기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6년에는 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6년 설비투자증가율은 '25년 1.8%보다 낮아진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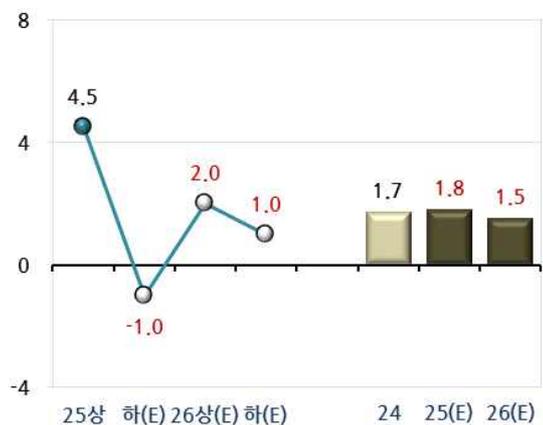
- 설비투자증가율은 반도체 및 IT 부문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까지 전년동기 대비 2.0%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증가세가 둔화하며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인협회.

< 설비투자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③ 대외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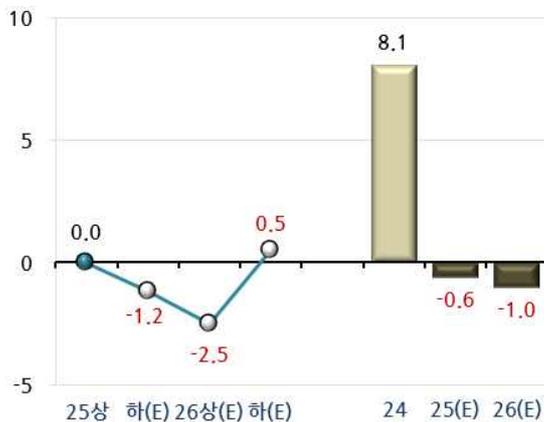
수출증가율	$\Delta 0.6\%$	\Rightarrow	$\Delta 1.0\%$
	(2025)		(2026)

- 수출증가율은 '25년 $\Delta 0.6\%$ 에서 '26년 $\Delta 1.0\%$ 로 감소세가 확대될 전망
 - '26년 상반기까지는 상호관세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 품목 관세에 따른 연관 품목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의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미·중 무역갈등 해소 지연, 미국의 품목별 관세 인상 및 확대 등 하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수입증가율	$\Delta 1.8\%$	\Rightarrow	1.1%
	(2025)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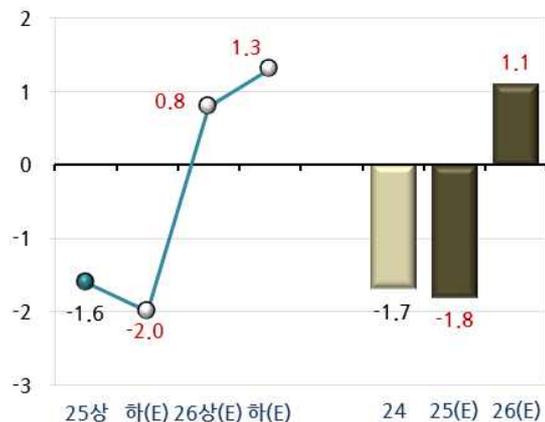
- 수입증가율은 '25년 $\Delta 1.8\%$ 에서 '26년 1.1%로 증가 전환 전망
 - '26년 상반기 0.8%, 하반기 1.3%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입재에 대한 수요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투자 반등,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해 자본재 및 소비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수출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관세청).

< 수입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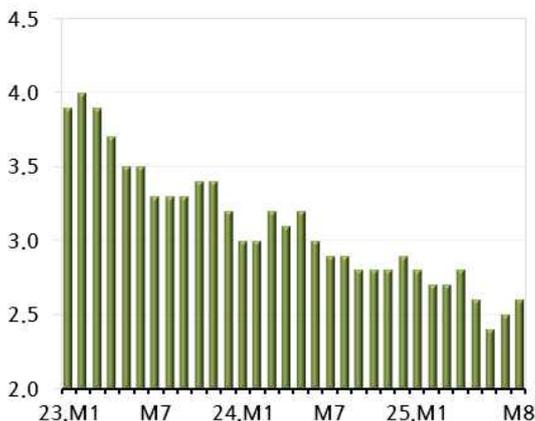
④ 물가 및 고용

소비자물가상승률	2.0% <small>(2025)</small>	⇨	1.9% <small>(2026)</small>
-----------------	--------------------------------------	---	--------------------------------------

-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은 내수가 회복함에 따라 다소 높아질 전망
 - 미 관세에 따른 세계 산업활동 둔화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 또한 미 금리 인하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1,300원 중반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상 기후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급등,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에 따른 공급망 혼란 등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도 상존함
 - 한편,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등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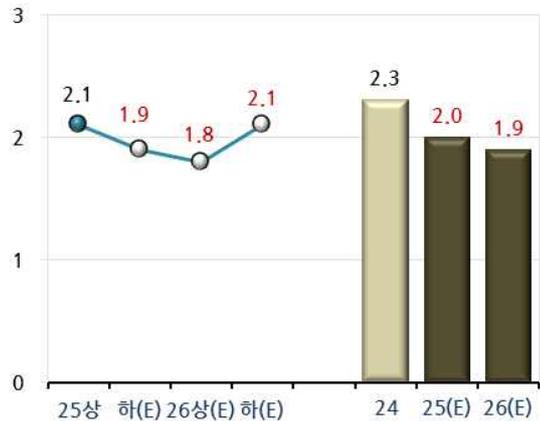
-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년 2.0%에서 '26년 물가안정목표 2.0%를 소폭 하회하는 1.9%로 둔화할 전망
 -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1.8%, 하반기에는 소폭 높은 2.1%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됨

<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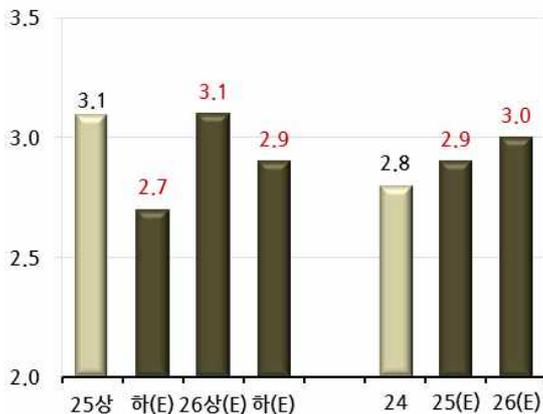
실업률	2.9%	⇒	3.0%
	(2025)		(2026)

- 실업률은 '25년 2.9%에서 '26년 3.0%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
 - '26년 상반기 실업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보다 낮은 2.9%가 예상됨
 -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상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취업자수증감	19만명	⇒	18만명
	(2025)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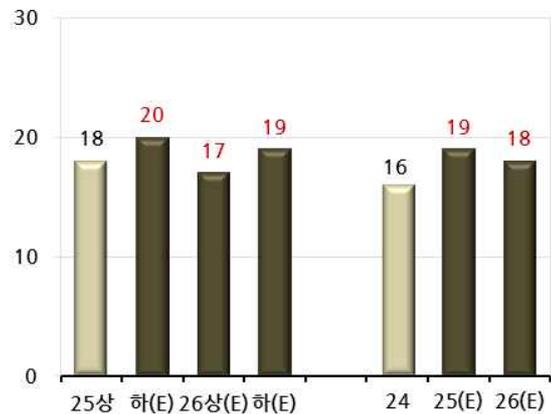
- 신규취업자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증감은 '25년 19만 명, '26년 18만 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17만 명, 하반기에는 19만 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 회복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 등 서비스업 고용 개선세가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부진을 상쇄한 영향으로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겠으나, 고용의 질은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통계청).

< 취업자수 증감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통계청).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6년 한국 경제 전망표(2025년 9월) >

구 분		2024	2025			2026(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0	0.3	1.7	1.0	2.3	1.5	1.9
	민간소비 (%)	1.1	0.7	1.8	1.3	1.9	1.5	1.7
	건설투자 (%)	△3.3	△12.2	△1.7	△7.0	4.2	1.2	2.6
	설비투자 (%)	1.7	4.5	△1.0	1.8	2.0	1.0	1.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990	494	380	874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518	278	311	589	170	287	457
	수출증가율 (%)	8.1	0.0	△1.2	△0.6	△2.5	0.5	△1.0
	수입증가율 (%)	△1.7	△1.6	△2.0	△1.8	0.8	1.3	1.1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2.1	1.9	2.0	1.8	2.1	1.9
실업률 (%)		2.8	3.1	2.7	2.9	3.1	2.9	3.0
취업자수 증감 (만 명)		16	18	20	19	17	19	18

4. 시사점

첫째, 정상적 경제 성장 기조로의 조속한 복귀를 통해 시장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 심리가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불황 장기화의 가장 큰 폐해는 경기 활력 약화로 인해 낮아진 소비와 투자 수준에 민간 주체들이 적응해 갈수록 경기 반등의 모멘텀 확보가 쉽지 않아 불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임
-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도록 정부 정책 기조가 시장 친화적이면서 경제 정책의 목표 또한 확고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함
- 경제 정책은 「정책 시행 → 시장의 정책 이해 → 시장의 인식 전환 →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 변화」의 경로를 통해야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전개할 때,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론 정책과 현실 시장 간 상황 인식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정책 전개 과정에서 정책이 시장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신속히 그 원인을 파악하여 유연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

둘째, 재정정책은 운용의 묘를 살려 경기 진작과 성장잠재력 확충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며, 2026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진작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 미래 경기 회복에 대해 가계와 기업이 가지는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약한 회복 강도를 고려하면 당분간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번 '26년 예산안이 비록 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있지만 제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나, '26년에도 미약한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집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정책의 경우에도 집행 과정에서 단기적 경기 진작 효과도 일정 부분 도모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임
- 다만, '25년 하반기에 심각한 내수 불황 극복을 위해 사용된 소비 쿠폰 지급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의 헬리콥터 머니 Helicopter money 정책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보편적 가계 구매력 지원은 자제되어야 할 것임

셋째, 어렵게 만들어진 경기 회복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재정정책의 확장 기조와 손발이 맞는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

-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 과정에서 언급해 온 '금융 불균형'의 문제의식은 누구나 공감하고, 한국 경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임은 분명함
- 다만, 재정정책은 경기 활성화의 방향으로 그 목표를 잡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않는 데에서 발생하는 '거시 정책 불균형' 문제 또한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임
-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 부채 축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결코 작지 않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앙은행이 보다 전향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현안의 경중을 잘 살펴 미시적인 효과와 거시적인 효과가 조화가 되도록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단기적인 경기 회복력의 강도를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동력이 되는 기업 투자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 트럼프 라운드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위축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됨
- 이에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노력 지속, 금융·세제상 지원 강화, 노사관계 안정, 기업인의 사기 진작 정책 등 다각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
- 나아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전용 특구 조성 계획의 확대, 투자 관련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강화, 외국인 투자 전용 특구 내 법률, 조세, 회계 등의 경영 지원 서비스 강화, 교육, 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 서비스 체계 제공 등을 망라한 패키지형 투자 유치 정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다섯째,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건설투자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급 주도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연간 기준으로 '21년 이후 5년째 역성장 중인 건설투자가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고용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과거 인위적인 경기 진작의 수단으로 건설 경기 부양을 흔히 사용하면서 한국을 '토건(土建) 공화국'이라 부를 정도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건설투자의 높은 국민경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건설 경기 침체를 방치한 채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부동산 시장 버블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투자가 건강한 펀더멘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함
- 토목 부문에서 교통, 통신, 철도 등의 전통적인 SOC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시대 트렌드에 맞도록 AI 인프라 확충, 친환경 도로 건설, 저탄소 배출 물류 시스템 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의 AX·GX 인프라 확충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현재 건설 시장의 가장 큰 현안인 건축 경기 불황 장기화에 대응하여, 지방 시장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요구되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금융 시장의 지원 병행,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 등의 미시적 노력도 필요함

여섯째, 향후 우려되는 트럼프 통상 정책의 제2라운드의 시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행 능력 점검이 요구된다.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이 일단락되었으나, 미국의 통상 질서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트럼프 라운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그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예상되는 추가적인 통상 압력은 미국 내 이익단체들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각국이 밝힌 대미 투자의 이행 정도 점검을 통한 패널티 관세 부과 등임
- 따라서, 통상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위기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특히,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분쟁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현지화 등을 통해 특정 공급망 또는 수출 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교역 환경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야 함
- 특히 G2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이외 시장에 대한 민관 합동 시

장개척단 파견,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AI 전환 가속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첨단 기술력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지막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고루 확산되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힘써야 한다.

- 경기 부진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생활 안정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하고, 공공일자리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꾀해야 함
-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경기 침체기 피해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의 세제 혜택,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중개, 원활한 폐업을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 한편, 사회 안전망 전반을 점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제한된 복지 재원 하에서 복지 서비스가 최대한 적재적소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동향분석팀장 (2072-6306, leebuh@hri.co.kr)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신지영 연구위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시연 연구위원 (2072-6248, syroh@hri.co.kr)